

선진기업의 특허공세 대응을 위한 권리 확보



정재관
KEA 특허지원센터장

1. 서론

최근 RFID와 관련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RFID 관련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통한 시장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RFID와 관련된 선진 기업의 특허공세 또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RFID와 관련된 특허공세의 중심에 인터멕이라는 업체가 있다. 인터멕사는 최근 “RFID 래피드 스타트 라이선스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 대중매체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2. 인터멕사의 특허공세

최근 인터멕사는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행사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FRID 특허분쟁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인터멕사는 지금까지 여러 경쟁업체를 상대로 특허분쟁을 야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멕과 미국 심볼테크놀로지 및 매트릭스(심볼 인수)와의 특허 침해 소송을 들 수 있다. 인터멕과 심볼 간의 특허분쟁은 최근의 특허분쟁 경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하여 해결되었다.

<인터멕이 관련된 특허분쟁 현황>

- 2004.6 인터멕, 매트릭스 상대 RFID 침해소송 제기
- 2005.3 심볼, 인터멕 상대 Wi-Fi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
- 2005.3 인터멕, 심볼 상대 휴대형 데이터 처리 및 GUI 관련 특허 6건 침해소송 제기
- 2005.4 심볼, 인터멕 상대 RFID 특허침해소송 제기
- 2005.9 인터멕과 심볼 분쟁타결
 - 심볼 : ‘래피드 스타트 RFID 지적재산권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참여
 - 인터멕 :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심볼의 RFID 지적재산권 사용

이와 같이 인터멕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특허를 통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경쟁업체에 대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3. 업체인수를 통한 특허권 확보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멕사는 “RFID 래피드 스타트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세계 RFID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멕사의 특허공세 배경에는 기술 또는 업체 인수를 통한 특허권의 확보가 존재

한다. 즉, 인터택은 1997년 IBM로부터 RFID 반도체 기술을 인수하였으며, 1998년에는 RFID 원천 기술 업체인 암텍(Amtech)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RFID 원천기술 및 900MHz대의 UHF 관련 특허 다수 확보하게 되었다.

<기술 및 업체인수를 통한 인터택사의 특허확보>

- 1997년, IBM로부터 RFID 반도체 기술 인수
- 1998년, RFID 원천 기술 업체인 암텍(Amtech) 인수
→ RFID 원천기술 및 900MHz대의 UHF 관련 특허 다수 확보

즉, 인터택사는 기술 또는 업체 인수를 통하여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쟁업체에 대한 특허공세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삼고 있다.

4. 결론

선진기업들이 특허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특허보유기업이 특허클레임 제기 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분쟁대응 전략 부재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업체의 특허보유 건수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므로 앞서 언급한 인터택사의 사례와 같이, 기업 인수를 통한 특허확보는 우리에게도 또한 필요한 전략이라 생각된다. 이는 선진기업들과의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기술 역량의 강화 및 특허보유의 확대를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특허공세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차세대전지 일본 앞지르기 본격 시동

차세대전지 성장동력사업 개시 2년 6개월만에 리튬이차전지 4대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연구개발이 완료됨으로써 일본을 추월하여 2012년 세계 제1의 전지산업 달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차세대전지 성장동력사업단" (단장 서울대 오승모 교수)은 11.30~12.2(3일) "차세대전지 성장동력사업 제3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음극활물질과 격리막 등 리튬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리튬이차전지는 지금까지 개발된 전지 가운데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전지로서 일본이 세계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나, 금번 핵심소재에 대한 국내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기술력의 차이를 크게 좁히고 연간 1,500억 원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Mobile IT, 전기자동차, 로봇, 전력저장 등 4대 활용분야와 부품·소재, 안전성, 설계, 활용, 공정기술 등 5대 핵심기술분야에 기술개발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술 선도력을 높이기 위해 선행, 기초,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기 구축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 기업의 사업화 애로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표준화, 안전성 평가, 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화지원센터를 성장동력사업단내에 설립하기로 하였다.
-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골자로 하여 오는 2012년 128억불로 예상되는 세계시장의 50%를 점유, 세계 제1위의 전지강국 달성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전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